

올 겨울 '강추' 뮤지컬

웃음+따뜻함 '오 당신이 잠든 사이'

11일까지 5·18기념문화관

올 겨울, 가슴이 따뜻해지고 싶다면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를 강력추천한다. 화려한 무대 장치도, 유명 스타도 없지만 뛰어난 완성도로 관객들의 감정을 쥐락펴락하는 이 작품을 보고 나면 행복해진다. 결코 후회 없는 작품이다.

소극장 뮤지컬로는 처음으로 제12회 한국뮤지컬 대상에서 최우수작품상, 작사상, 극본상을 수상했고, 지난 2005년 초연 후 지금까지 25만명이 관람하는 등 평가도 월등하다.

11일까지 평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4시·7시, 일요일 오후 3시·6시 5·18기념문화관.

작품의 배경은 크리스마스 이브의 무료 자선 병원. 방송 다큐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부금을 받는데 일조해야 할 하반신 마비 환자 최병호가 밤사이 갑작스럽게 사라진다. 최병호를 찾는 과정에서 같은 병실의 환자인 알코올 중독자 숙자, 차매결린 할머니, 자원봉사자 정연 등의 사연이 하나씩 밝혀지고, 관객들은 그들의 사연에 동감하며 작품에 빠져든다.

귀에 감기는 멜로디와 삶에 희망을 주는 가사들로 이루어진 다양한 장르의 뮤지컬 넘버를 역시 관객들의 감정 이입을 돕는다.

윤희환 웃음과 눈물샘을 자극하는



가슴 찡한 감동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으며 무엇보다 다양한 역할을 한꺼번에 소화하는 배우들의 연기와 불니 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팀웍이 돋보인다.

광주 출신으로 '오 당신이 잠든 사이' '김종욱 찾기', '형제는 용감했다' 등 '3연타석 흥행 홀란'을 치며 뮤지컬계를 장악한 데 이어 영화 '김종욱 찾기'의 메가폰도 잡았던 장유정 작가가 극본과 가사를 쓰고 연출을 맡았다. 티켓 가격 5만원, 4만원, 문의 1600-668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시립합창단 내정자 자진 사퇴

광주시 내정 철회... 내년 1월 이후 재선임

광주시는 광주시립합창단 지휘자로 내정됐던 이어진씨가 6일 지휘자직을 자진 사퇴함에 따라 내정을 철회했다.

광주시는 "단원들의 반발이 있는 상황에서는 역할 수행이 어렵다며 이씨가 지휘자직을 고사함에 따라 내정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날 언론사에 보낸 문건에서 "시의 결정을 통보받았을 때 무거운 마음속에서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려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들어 자진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예술단의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는

근원적인 이유를 파악하고, 발전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단원들은 탄원서를 통해 "이씨가 합창 지휘를 전공하지 않고, 프로 합창단 지휘 경험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내정을 받아들이지 않자 반발했었다.

시립합창단은 당분간 부지휘자 체제로 운영되며 광주시는 합창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을 거친 후 내년 1월 이후 차기 단장 선임 문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씨는 광주시립소년합창단 지휘자직은 계속 수행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개관 20돌 앞둔 시립미술관 '飛上'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성)이 개관 20주년을 맞는 2012년, 제2의 도약을 준비한다. 새로운 국내 미술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서울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2013년 개관·기무사 터) 인근으로 서울 분관을 이전하고, 해외 미술관과 작가·학예연구사를 교류하는 등 외형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개관 기념전과 베이징 금일(今日)미술관의 교류전 등 풍성한 전시도 마련하고, 외부 전시 기획자를 영입해 새로운 전시를

고 있고, 국내 유명 화랑이 밀집해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부지 2만7303㎡, 전체면적 5만2627㎡에 지하 3층의 규모로 건립되며 전시실 7개를 갖춘 대규모 문화시설이다. 또 경복궁 바로 옆 옛 미국 대사관 숙소부지에 대한항공이 지하 4층, 지하 4층의 7성급 관광호텔 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문화·관광 인프라가 뛰어난 곳이다.

현재 장소 임대료 논의 중이며 과거 갤러리로 쓰였던 한옥을 개

전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2년에 개관한 금일미술관은 중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민영 비영리 공익성 미술관이며, 중국 현대미술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이번 교류전은 지역 작가들이 금일미술관에서 전시를 열고, 중국 작가들의 작품을 광주에서 선보이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립미술관은 지역 작가를 해외 화단에 소개하는 작가 육성 프로그램도 늘린다. 최근 독일의 마이클 쉘츠 갤러리와 양 미술관의 큐레이터와 작가들 교류하는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 협약에 따라 오는 8월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2명이 독일과 파견돼, 현지 미술관을 돌며 실무 연수를 하게 됐다. 또 창작스튜디오 작가들을 해외 미술관과 교류하는 방안 등도 추진 중이다.

황영성 관장은 "개관기념전은 호남 화단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전시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고, 지역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2년 8월 광주문화회관 내에 문을 열었던 광주시립미술관은 지난 2007년 현재의 중외공원으로 이전했다. 지난 2009년 국내 국립현대미술관으로는 최초로 중국 베이징장작센터를 오픈하는 등 지역의 대표 문화기관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이 개관 20주년을 맞는 2012년 대규모 개관기념전을 추진하는 등 재도약을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은 미술관 전경 <광주일보 자료>

“초대합니다”

시·공·예·상·원

with 황지우

16일 광산문화회관에서 토크콘서트

황지우 시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5·18 항쟁 당시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의 삶을 되돌아 보는 이색 행사가 열린다.

광산구청은 오는 16일 오후 7시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토크콘서트 '지금, 윤상원 with 황지우'를 연다.

윤상원 열사를 이야기와 음악으로 추억하고, 기리는 이날 토크콘서트는 들불열사기념사업회 윤난실 부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또 생전 윤 열사가 이끌었던 들불야학의 1기 졸업생이자 5·18 당시 '투사회보' 팀으로 활동했던 나명관씨가 출연해 '윤상원'을 증언한다. 오수성 전남대 심리학과 교수도 자신이 보살핀 5·18 체험자들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PTSD)"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밖에 가수 김원중의 공연과 전남대 김광복 국악과 교수의 대금 연주, 재즈 피아니스트 JC Clark의 즉흥곡, 광산구립 합창단의 공연이 펼쳐진다.

오는 12일까지 광산구청 홈페이지에 참가 신청하면된다. 선착순 400명 입장, 무료. 문의 062-960-8257.

/중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e@

'음악 공감' 조애란 작곡 발표회

내일 금호아트홀

조애란 작곡 발표회가 오는 8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발표 작품은 '정호승 시에 의한 세 개의 연가곡-당신', '오보에, 첼로, 피아노를 위한 광시곡', '현악 4중주를 위한 에우라디체에게',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3가지 소품' 등이다. 교수연·하수호·김현철·김창현·이종만·김연·김영진·이후성씨 등이 연주자로 참여한다.

전남대와 오스트리아 인스브룩 대학에서 수학한 조씨는 독일 레겐스브룩 국립음대에서 작곡 및 음악 이론 전공 최고과정을 졸업했다.

제1회 전주현대음악제 공모에서 당선됐으며 현재 전남대·광주대 등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문의 010-6331-683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밋밋한 아이들의 이야기-어울림 한마당' 10일 방림동성당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과 어울림교류부가 함께 마련한 '밋밋한 아이들의 이야기-2011 어울림 한마당'이 10일 오후 5시 광주 방림동 성당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두 단체가 놀이패 신명과 진행한 '밋밋으로 말하는 친구야 함께 놀자-이야기로 만나는 탈'의

발표 무대다. 연극공연 '그때 그랬지 방림동 옛 이야기', 율동 '별빛 달빛', '난타 공연' 등이 열리며 이야기 퍼즐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가 꾸꾸는 세상' 등도 선보인다. 문의 062-234-272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30년 전통 광주대표 맛집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2011년을 보내는 의미있는 자리를 아리랑 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송년·신년모임 예약 접수중

● 30년 전통의 한정식 (기본 3인 이상)

A코스 38,000원 B코스 33,000원 C코스 25,000원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기본 3인 이상)

오찬정식 15,000원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Shin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노사연 Dinner Show

2011 Winter Special ₩165,000원 (VAT 포함)

신양파크 호텔 1층 그랜드 볼룸 **2011. 12. 15(목) 19:00**

19:00
입장 및 식사

20:00
디너쇼

21:40
퇴장 (롤케익 증정)

예약 및 문의: 062)228-4711~2 대표전화: 062)228-8000 *15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